



해외 동향

□ 브라질, 나토에 엠브라에르 개발 軍 수송기 수출 추진

- 브라질, 자국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에르(Embraer)의 자체 개발 군용수송기 KC-390의 북대서양조약기구(NATO) 수출 추진
- 브라질 외교장관(에르네스투 아라우주), 이탈리아·헝가리·폴란드 등 유럽 3개국 방문하여 나토 회원국들에 KC-390 수출 초점



군용수송기 KC-390

- 전장=35.06m
- 전폭=33.91m
- 가격 : 956억 원(1대 당)
- 전고=11.43m
- 최대적재량=36t

- 브라질 공군, 현재 사용 중인 미국 록히드마틴社의 C-130허큘리스 수송기를 대체하기 위해 KC-390 28대 도입계획

□ 中, 극초음속 비행 기술 박차...이번엔 신소재 개발

- 중국, 마하5* 이상의 극초음속* 비행 시 항공기와 공기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3000℃ 이상의 열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내열 복합소재 개발
- *1마하= 340m/s , 1,224km/h *극초음속 : 통상 마하5이상의 고속비행
- 일반 금속 재료는 1500℃에서 녹는 것에 반해, 이번에 개발된 세라믹과 내화금속 합성 신소재는 극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고열을 견뎌낼 수 있다는 설명
- 중국, 지난해 8월 마하 5.5 이상의 속도로 6분 이상 비행에 성공한 극초음속 비행체 '싱쿱'2' 개발 성공
- 극초음속 비행체는 중국 외에 미국과 러시아도 개발에 박차
 - ┌ 러시아, 마하20속도의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'아방가르드'시험 발사에 성공
 - └ 록히드마틴-미항공우주국(NASA), 마하6으로 비행하는 차세대 극초음속 무인 전략정찰기 SR-72 개발 중

□ 中, '에어버스 헬리콥터' 공장 본격 가동...EU 밖 최초

- 중국 산둥성 칭다오(靑島)에 연18대 양산 가능한 에어버스 H135*헬리콥터 생산공장 가동. 에어버스 헬리콥터 생산공장이 EU 외의 국가에 설립된 것은 처음

※ H135 : 쌍발엔진 경량 헬리콥터/ 소방, 응급구조, 수색, 관광 등 용도로 사용

- 중-EU, 항공·우주분야 관계 급진전

┌ 2016년 중국 헬리콥터 리스기업, H135 100대 구매 계약

└ 2019. 3. 시진핑 국가주석 프랑스 방문 당시, 에어버스 비행기 300대 구매 결정



국내 동향

□ '서울-울릉 1시간' 울릉공항 2025년 개항

-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, 2015년 기본계획 고시, 2016년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, 2020년 상반기 착공예정, 2025년 개항 목표 (총 사업비 6633억 원 투입)

-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 취항,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신설

□ 스텔스 전투기 F-35A 전력화 시동

- 3월 29일, 청주기지에 F-35A 2대 도착, 올해 10여 대 도입 후 2021년까지 40대를 전력화*할 예정

*전력화 : 항공기를 부대에 배치한 이후 조종사들이 제대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

- F-35A,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 탑재, 지원 전력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목표물을 선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
- F-35A 2대에 대한 전력화 행사는 5월로 예정되며, 이에 앞서 스텔스 성능 확인을 위한 비행훈련을 시작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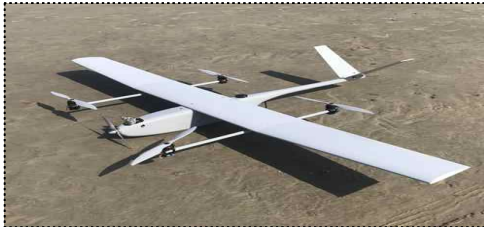


스텔스 전투기 F-35A

- 최대속력 : 마하 1.8
- 전투행동반경 : 1093km
- 무장 : 공대공미사일, 합동직격탄(JDAM), 정밀유도폭탄(SDB)
- 전략표적 타격*의 핵심전력
- * 전략표적 타격 : 적 미사일을 탐지·추적·파괴
- 가격 : 1000 억 원(대 당)

□ KIOST, 국내 최초 장거리 드론 개발 · 시범비행 성공

- 한국해양과학기술원(KIOST), 국내 최초 2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 가능한 ‘하이브리드 VTOL(Vertical Take off & Landing)드론’ 개발, 시험비행 성공



하이브리드 VTOL 드론

- 회전익 쿼드콥터로 수직방향 이·착륙 가능
- 이륙 후 고정익 모드로 변환
- 80~110km 속도로 2시간 이상 비행 가능

- ‘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’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진행, KIOST와 (주)비엔티가 주관 개발함.
- 육·해상 광역 감시 및 정찰·안전관리·환경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 적용 가능



관내 동향

□ 2019 항공부품 해외수주개척단 북미 타겟마케팅 추진

- 송도근 사천시장이 이끈 항공부품 해외수주 개척단, 4. 14.(일)부터 6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『Aero Montreal 2019』에 참가, 관내 항공부품업체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
 - ┌ 참가업체 : 5개사(샘코, 엔디티엔지니어링, 케이피항공산업,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, 코텍)
 - └ 주요내용 : 기업별 홍보부스 운영 및 방문상담
 - └ 주요성과 : 상담 46건, 상담액 16.5백만불(190억 원)
- 佛 BCI와 올해 9월 사천에서 열릴 ‘에어로마트 사천 2019’에 대한 협약 체결
- **STELIA**(동체 조립), **AV&R**(엔진부품장비), **NETUR**(정밀엔진부품), **Tecnar**(용접·도금·센서장비) 등 몬트리올 현지 항공기업 방문을 통한 벤치마킹 및 신규수주물량 창출 지원
- 퀘벡주정부 및 몬트리올 총영사관 간담회를 통해 경남항공기업의 캐나다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네트워킹 구축

□ **KAI, 아르헨티나와 FA-50 · 수리온 수출 논의**

- KAI, 4월 29일 아르헨티나 마크리 대통령 등 최고위급 인사와 만나 FA-50 경공격기와 수리온 기동헬기 수출 및 항공산업 협력방안 논의
- 현재 아르헨티나 공군, 12대 규모의 노후전투기 교체사업 추진 중으로 FA-50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.

□ **KAI, 수직 이착륙 무인기 독자개발 추진...연내 시험비행**

- 체계·비행체 통합, 지상통제장비, 데이터 링크, 임무장비 등 주요기술 확보
- 2017년부터 무인기 개발 핵심인 자동비행제어 시스템의 로직설계,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체 개발 중
- 수직이착륙(Vertical Take off & Landing) 무인기, 제자리 비행 및 활주로 없이 자유롭게 이착륙 가능
- 올해 비행시험을 거쳐 성능 검증 할 예정. 장소 구애받지 않고 경찰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



KAI 수직이착륙 무인기 'NI-600VT'

- 틸트로터 형태의 차기 군단급 무인기
- 2인승 유인 소형헬기를 개조한 다목적 무인기
- 최대 이륙중량 600kg, 총 길이 9m
- 주야간 영상감지기(EO/IR)장착

작성일	2019.5. 10.(금)	보고일	2019. 5. 10.(금)
부서명	우주항공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박예지 (055-831-3470)